

제 2 교시

추 리 논 증

성명

수험 번호

홀수형

- 이 문제지는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문형, 성명,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해당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1. “자녀는 부(父)의 성(姓)을 따른다.”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갑은 합헌, 을은 위헌이라는 견해인데,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의 논거>

- (가) 부모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는 곤란하므로 어차피 부성 또는 모성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 (나) 자녀가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은 오랜 역사를 거쳐 형성, 유지되어 왔고, 그 결과 대부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성은 곧 부의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다) 성의 사용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을의 논거>

- (라) 부성주의(父姓主義)는 부와 남성을 가족의 중심에 놓고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남성에 비해 부차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놓아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 (마) 부성주의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가족제도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오늘날의 헌법이념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바) 자녀 성의 결정은 부와 모 공동의 관심사이므로 부모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보 기>

- ㄱ. 갑과 을의 견해 차이는 성이 생물학적 혈통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기인한다.
- ㄴ. 통계자료에 의하여 사회 일반이 성을 부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해도 을의 논거가 유지될 수 있다.
- ㄷ. (바)를 통해,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 외의 제3의 성을 포함한 성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을이 지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ㄹ. 법률조항을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을 따른다.”고 개정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위 논거에 기초하여 위헌 주장을 할 수 있다.

2. A조항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A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갑의 판단 내용이다. 관련 헌법조항은 <규정>과 같다. 갑의 판단에 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2. (a)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서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b)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3.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 4. 운전자는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을 지는 데 비해,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등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므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 5.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형벌인 벌금보다는 정도가 약한 범칙금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6. A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규정>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후략)”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후략)”

- ① 2(a)가 규범의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적 명제의 설정이라면, 2(b)는 여기에 구체적 행동유형을 포섭시키고 있다.
- ② 결론에 이르는 판단의 순서상 2는 1에 앞설 수 없으나, 5는 4에 앞설 수 있다.
- ③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갑은 3과 4의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갑은 A조항에 의한 규제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로써’ 하는 제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다.
- ⑤ 갑이 5와 달리, 범칙금이 과중한 처벌이어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6이 달라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 X, Y, Z 세 국가가 합의한 <규정>과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규정>

제1조 어떤 국가도 수입 상품에 대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동종(同種) 상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를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어떤 국가도 자국의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국산품과 직접 경쟁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수입 상품에 대하여 국산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와 유사한 정도를 넘는 내국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X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국산품 A에 대해서 5%의 내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X국은 Y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 B와 C에 대해서는 각각 6%와 8%, Z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 D에 대해서는 10%의 내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 기>—

- ㄱ. 만약 상품 A와 B가 동종 승용차라면 X국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ㄴ. 만약 상품 A와 C가 각각 음주(飲酒) 용도의 소주와 위스키라면, X국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Y국은 상품 A와 C를 동종 상품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
 ㄷ. 만약 상품 A와 D가 각각 냉장고와 휴대전화라면 X국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ㄹ. 만약 상품 C와 D가 각각 X국이 수입한 사과와 배이고 이 두 상품이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X국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가상의 국가 P에서는 선지자가 정한 다음 4계명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반영한 재산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다. P국 재산법을 적용함으로써 선지자의 뜻에 부합하도록 판단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국 재산규율 4계명>

재산관계에서 모든 인간은,

1. 태어나는 순간부터 독립되고 대등한 존재이어야 한다.
2. 거래를 함에 있어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 존재이어야 한다.
3. 타인의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존재이어야 한다.
4. 항상 진정한 의사(意思)를 가지고 말하는 존재이어야 한다.

—<보 기>—

- ㄱ. A가 스스로 진품으로 확신하고 구매했던 고려청자가 다음 날 가품으로 밝혀진다면, A가 구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ㄴ. 15세에 불과한 B가 자신의 돈 5만원으로 은반지를 C로부터 구매하였다면,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와 함께 온 B가 반지 대금 5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ㄷ. D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자 이웃인 E가 D를 돕기 위해 D의 집에 가서 도둑과 격투를 벌이다가 다쳤다면, E가 자신의 병원 치료비를 D에게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ㄹ. F는 친구 G에게 “어제 연못에 빠진 네 시계, 내가 찾아 줄게.”라고 하고는 다음날 그와 유사한 시계를 사서 G에게 주었는데, G가 이를 거절하고 연못에 빠진 그 시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면 F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A국의 법에 대한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기관이 하자 있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기관은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이나 신뢰보호의 침해와 같은 불이익을 비교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하자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사기에 의한 신청에 근거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자신이 받는 이익이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개인의 불이익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 기>

- ㄱ. 주변 환경과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골프장의 건설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린 지 1년 후 이 처분이 골프장법에 위반됨을 알게 된 경우, 국가기관은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국가기관이 운전면허법을 위반하여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 이 처분은 운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 ㄷ. 노인이 나이를 속여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경우, 엄격한 법의 집행으로 얻게 될 공익이 노인이 받을 불이익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은 지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6. 견해 (가), (나)와 <전제>에 기초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일단 자발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현지의 조건에 자신을 맡겨야 하며, 그가 외국인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한, 외국인의 국적 국가는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
- (나)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일한 대우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주요 기준은 되지만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으며, 외국인에 대한 대우 수준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수준에 합치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전제>

- (가)와 (나)는 사적 영역에서의 논의이고 공적 영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배제한다. 또한 내란 또는 전쟁 등 국가위기 상황이 아닌 평시를 기준으로 한다.
- 자국민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대우한다.
- 외국인에 대한 대우 수준은 (가)보다 (나)를 따를 때 더 낮아지지는 않는다.

<보 기>

- ㄱ. (가)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ㄴ. (나)는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특별대우를 선진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 ㄷ. ‘외국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는 그 외국인의 국적 국가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가)와 (나) 모두에 적용 가능한 배경 진술이 될 수 있다.
- ㄹ. 만약 (가)를 지지하는 어떤 국가가 다른 상황이나 조건의 변화 없이 (나)를 따르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조직폭력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갑이 소년 K를 차에 태우고 간 것이 목격되었고 이후 K가 실종되었다. K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갑은 친구 을을 변호사로 선임하였다. <규정>에 근거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제3조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이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알려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의 대상】

비밀유지 대상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무상 나눈 비밀 대화 및 문서를 포함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 기간】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된다.

—<보 기>—

- ㄱ. 갑이 납치사실을 인정하고 비밀을 지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K의 소재를 알려주었다면, 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ㄴ. 갑의 소송 진행 중, 갑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직원이 갑 몰래 을에게만 갑이 살해한 K의 소재를 알려주었다면, 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줄 수 있다.
- ㄷ. 갑의 소송 진행 중, 갑과 을이 친구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자신이 K를 납치했다고 갑이 공개적으로 실토했어 을이 K의 소재를 알게 되었다면, 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ㄹ. 갑으로부터 K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는 것을 듣게 된 을이 변호사의 양심상 더 이상 갑의 변호사가 될 수 없어 사임하였더라도, 을은 K의 소재를 경찰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8. 다음 글에서 그 근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은?

- 직장은,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에 있어 생계유지의 수단이라는 전통적 의미 이외에도, 근로자가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는 장이라는 현대적 의미도 갖는다.
- 근로계약은 단순히 노동력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적 공동체를 형성시킨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관계의 형성과 지속에 있어 업무 능력보다는 상호 인간적 신뢰가 더 중요하다. 또한 그 공동체는 고유한 질서를 가진 또 다른 작은 사회에 다름 아니다.
- 노동법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이다. 둘째, 근로자가 업무 수행의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이다. 적격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싶어도 상당 기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회사의 경영 사정이 매우 좋지 않게 되어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이다. 이를 흔히 정리해고라고 하는데, 정리해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두 해고 유형과 구별된다.

- ① 정리해고의 경우, 해고사유가 발생하면 이후 일정한 기준을 통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② 요즘은 정년퇴임하여 연금도 넉넉히 받는 노인들이 동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③ 흡연 행위는 비록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회사는 사내 규칙을 통해 근로자의 사내 흡연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 ④ 근로자인 택시 운전자가 원인 불명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더라도 해고하기 전에 그것이 일시적인 증상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 ⑤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사용자가 구직자에게 취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지만 이에 대해 구직자가 사생활이라며 대답을 거부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면접 점수를 낮게 주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9.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경쟁시장에서 공급자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양까지만 생산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산량보다 적고, 가격은 경쟁가격보다 높다. 이 경우에 독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 경제를 자유방임 상태에 둘 경우 경제적 자유에 내재하는 경제력 집중적 또는 시장 지배적 경향으로 인해 시장의 자유가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법질서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형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정한 경쟁 질서의 유지는 자연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 과제이다.

<보 기>

- ㄱ. 국가는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ㄴ. 구조적으로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는 산업에 대하여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둘 경우 독점의 사회적 손실이 생기므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 ㄷ. 독점적 제조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규모 경쟁 제조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ㄹ. 맥주와 소주가 단일시장에서 경쟁한다면, 맥주 소비자의 70%가 마시는 맥주의 제조회사 A가 소주 소비자의 80%가 마시는 소주의 제조회사 B를 합병하려 할 때 국가는 A에게 합병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논증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쟁의 원인에 관한 세 가지 다른 수준에서의 분석이 있다. 먼저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악하다고 가정하고, 전쟁은 사악한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구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특정한 지역이나 시대에만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인간의 사악한 권력욕이 전쟁의 원인이라면, 전쟁의 편중된 발생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전쟁의 원인을 국가의 속성, 즉 한 국가의 정치체제에서 찾으려는 분석이 있다. 민주 정치체제가 그 민주성으로 인해 비민주 정치체제에 비하여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국가인 미국이 20세기 후반 크고 작은 전쟁에 지속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정치체제의 성격과 국제 분쟁의 발발 사이에는 제한적인 관계만 있을 뿐이며,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의 전쟁 사례에서 그 원인을 밝혀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국제 분쟁의 궁극적 원인은 국제적 무정부 상태라고 규정되는 국제체제의 상황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쟁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어떤 권위나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인해 평화적인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방법들이 결여된 국제체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체제에서 국가 간의 전쟁가능성은 국제 제도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보 기>

- 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금수 조치를 통해 국가 간의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참이라면, 이 논증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 ㄴ. “인간의 덕스러움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문명에 따라 차별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 참이라면, 이 논증의 설득력은 낮아진다.
- ㄷ.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경제체제의 전환 혹은 독재국가로부터 민주국가로의 전환이 전쟁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참이라면, 이 논증의 설득력은 낮아진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 ④ ㄱ, ㄷ ⑤ ㄱ, ㄴ, ㄷ

11.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될 수 없는 것은?

- A나라에서는 20등급의 작위를 두고, 전공을 세울 때마다 ‘작(爵)’을 수여하여 1급부터 최고 20급까지 승급시켰다. 전투에서 취해 온 적의 수급 수에 따라 ‘작’이 올라가는데, ‘작’ 1급 당 수급 1개씩 요구되었다. 단, 4급으로 승급하려면 적의 장교 1명을 포로로 잡는 전공이 추가로 요구되었다.
- ‘작’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권리에는 가족이 처벌을 받게 될 때 ‘작’을 반납하고 대신 형벌을 면제시켜주는 특권이 포함되었다. 본인을 포함하여 동거하고 있는 직계 가족과 배우자의 형벌 면제를 위해서는 1인당 ‘작’ 1급씩, 동거하고 있지 않은 부모, 형제와 그 배우자 및 자녀의 형벌 면제를 위해서는 1인당 ‘작’ 2급씩 반납해야 했다. 부모 중 1인이 면제되면 미성년 자녀 중 1인이 같이 면제될 수 있었다. 단 미성년자의 형벌 면제는 가족당 1인으로 제한되었으며, 미성년자의 기준은 신장 5척 미만에 12세 이하였다.
- 형제인 갑, 을, 병은 따로 살고 있었는데, 각각 자녀 2명과 부인을 두었다. 그런데 이 세 가족 및 갑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처벌될 상황에 처했다. 세 가족은 합쳐서 9급에 해당하는 ‘작’을 가지고 있었다. 갑은 부모와 세 가족의 자녀를 모두 면제시키려 하였고, 을은 자신의 가족 4인과 형제의 부인들을 모두 면제시키려 하였고, 병은 형제가 가진 ‘작’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면제시키려 하였다. 세 형제는 마침내 9급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작’을 반납하면서 형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

- ① 갑은 과거에 적의 장교 1명을 포로로 잡았을 것이다.
- ② 을은 과거에 적의 수급 3개 이상을 취해왔을 것이다.
- ③ 병은 과거에 적의 수급 2개 이상을 취해왔을 것이다.
- ④ 갑과 병 중 적어도 1명은 형벌을 면제받았을 것이다.
- ⑤ 자녀 중 신장 5척 미만이 3명 이상 있었을 것이다.

12. <자료>는 기원전 200년 경 한(漢)나라 때에 작성된 『주언서(奏讞書)』의 일부이다. 이로부터 바르게 추론될 수 없는 것은?

<자료>

여자 갑(甲)은 남편 정(丁)이 병사하여 상을 지내고 있었다. 관을 대청에 두고 정의 모친 소(素)와 함께 밤새 관 주위를 돌며 곡을 하다가 갑이 남자 병(丙)과 관 뒤의 안방에서 통정했다. 다음날 이 행위를 이유로 소가 갑을 고소했다. 관리가 갑을 체포한 뒤, 심리를 마치고 정위(廷尉)는 갑을 처벌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작성했다. 속관인 정사(廷史)가 뒤늦게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사 : 저는 처벌의 근거와 죄목이 분명하지 않으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과 남편 사후에 시집가는 것 중 어느 쪽의 죄가 더 무겁습니까?

정위 : 전자는 ‘간음’에 해당하고, 후자는 논죄하지 않는다.

정사 : 그럼 남편이 외출 중에 아내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간음 하였던더라도, 관리가 아내를 집 밖에서 체포하여 입건하였다면 어떻게 논죄합니까?

정위 : ‘간음’으로 논죄할 수 없다.

정사 : 살아 있는 가장을 잘 모시지 않은 자와 사망한 가장의 제사를 잘 지내지 않은 자는 어떻게 논죄합니까?

정위 : 전자는 ‘불효’에 해당하고, 후자는 논죄하지 않는다.

정사 : 살아 있는 가장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와 사망한 가장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논죄합니까?

정위 : 전자는 ‘오한(敖悍)’에 해당하고, 후자는 논죄하지 않는다.

정사 : 그런데 갑의 행위가 가장을 잘 모시지 못한 죄와 가르침을 듣지 않은 죄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신 것입니까?

정위 : 소를 모시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미 확인했다.

정사 :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오더군요. 다만 소가 갑에게 통정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내린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십니까?

정위 : 없었다고 확인했지만 내가 그 사실을 간과한 채 판결을 내렸구나. 네 견해에 따라 판결문을 다시 작성해야겠다.

- ① ‘간음’은 판결문에서 갑에게 적용된 죄목이 아니었을 것이다.
- ② 당초 정위는 갑의 행위를 소에 대한 죄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 ③ 정위는 갑이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문을 다시 작성했을 것이다.
- ④ 당초 정위는 갑의 행위가 ‘불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 ⑤ 당초 정위는 소가 가장에 해당해야 갑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13. <제도>와 표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은?

<제도>

위(魏)나라에서는 구품중정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최고 1품에서 9품까지 관품에 따른 9품관제를 두었다. 지방마다 중정이 재능과 덕행 및 평판을 바탕으로 관리희망자를 1품에서 9품까지 등급을 매겨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를 향품이라고 한다. 이부(吏部)는 관리를 임명할 때 초임관품을 향품보다 4품씩 낮게 임명하였고, 처음 정해진 향품은 관리가 된 후 승진할 수 있는 관품의 최종 한계를 의미하였다. 즉 향품 4품이면 초임 관품이 8품이고 최종 관품은 4품 이하에 머물러야 했다. 이상의 기준 내에서 관품이 이동하는 경우는 향품을 다시 매기지 않지만, 관리가 기준보다 높은 관품으로 승진하거나 낮은 관품으로 좌천될 때는 중정이 향품을 다시 매겨야 했다.

진(晉)나라가 되면 중정이 향품을 매길 때 동료나 고관의 자제를 우대했다. 그 결과 대대로 자제가 향품 2품 이상만 받는 가문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를 문지2품 즉 귀족이라 부른다. 그러자 같은 관품 내에서 향품 2품 이상과 향품 3품 이하가 맡는 관직이 엄격히 구분되었다. 전자를 ‘청직’, 후자를 ‘탁직’이라고 부른다. 위나라 때도 이 구분은 있었지만 초임직이 탁직이더라도 향품을 다시 받아 청직을 맡을 수도 있었다. 문지2품이 청직을 독점하자 향품에서 정해진 관품의 이동 기준을 넘는 관리의 승진이나 좌천 현상이 사라졌으므로 중정이 향품을 다시 매길 필요도 없어졌다.

	초임직(관품)	역임직1(관품)	역임직2(관품)	최종직(관품)
갑	중서랑(5품)	효기장군(4품)	산기상시(3품)	태학박사(6품)
을	공부사마(8품)	장군부연(7품)	공부연(7품)	시어사(6품)
병	비서랑(6품)	산기시랑(5품)	태상경(3품)	금자광록대부(2품)
정	낭중(8품)	공부연(7품)	종사중랑(6품)	광록훈(3품)
무	중산대부(7품)	말릉현령(7품)	종사중랑(6품)	시어사(6품)

- ① 병의 초임직인 비서랑은 탁직일 것이다.
- ② 정은 진나라 때에 향품을 받았을 것이다.
- ③ 을과 무의 최종직인 시어사는 청직일 것이다.
- ④ 갑~무 중 문지2품 출신은 2명일 것이다.
- ⑤ 갑~무 중 향품을 다시 받은 인물은 2명일 것이다.

14.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은?

갑자기 내린 소낙비를 피해 오두막으로 들어온 철수와 영희는 천장에서 마치 옥수수 묶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둘은 다음과 같이 나름의 ‘가설’을 내놓았다.

철수의 가설 : 천장에서 도깨비가 옥수수를 묶고 있다.
영희의 가설 : 비가 거세게 내리면서 지붕을 때리고 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자 내놓은 가설이 얼마나 ‘설명도’가 높은가 하는 문제와 그 가설의 ‘개연성’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문제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가설의 설명도’란 그 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이 참일 확률을 말한다. 반면 ‘가설의 개연성’이란 어떤 현상이 관찰을 통해 참이라고 밝혀졌다고 가정할 때 그 가설이 참일 확률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눈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다는 시각 정보를 갖고 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두 가설 A와 B가 있다고 해 보자. A는 눈앞에 야구 방망이가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B는 눈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두 가설 중 B가 A보다 주어진 관찰과 관련하여 설명도도 높고 개연성도 높다. 하지만 또 다른 가설 C를 생각해보자. 이에 따르면 사실 눈앞에는 종이가 없지만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종이 한 장이 있다면 가졌을 그런 시각 정보를 갖도록 만들었다. B와 C 중에서 개연성이 높은 쪽은 당연히 B이다. 하지만 두 가설 중 어느 가설이 더 설명도가 높은지는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가설의 설명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가설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관찰 현상을 표현하는 명제, ‘눈앞에 종이가 있다’와 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두 가설을 생각해보자. 이 명제로 표현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이 중 한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설명도가 높다고 가정한다면, 이 명제의 부정 명제(‘눈앞에 종이가 없다’)로 표현되는 관찰과 관련해서는 반대로 후자의 가설이 전자의 가설보다 설명도가 높다.

- ① 천장에서 나는 소리와 관련하여 철수의 가설이 영희의 가설보다 개연성이 높다.
- ② 천장에서 나는 소리와 관련하여 영희의 가설이 철수의 가설보다 설명도가 높다.
- ③ ‘눈앞에 종이가 있다’는 관찰과 관련하여 A와 C는 설명도가 비슷하다.
- ④ ‘눈앞에 종이가 없다’는 관찰과 관련하여 A가 B보다 설명도가 높다.
- ⑤ ‘눈앞에 종이가 없다’는 관찰과 관련하여 C가 A보다 설명도가 높다.

15. 다음 대화와 <표>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은?

철수 : 왜 돼지고기 삼겹살의 기름은 상온에서 고체인데 기름장의 참기름은 상온에서 액체일까?

영희 :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의 포화지방산 대 불포화지방산 조성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야.

철수 :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차이가 뭐지?

영희 : 지방산은 지방의 구성 성분으로, 여러 개의 탄소가 선형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방산의 탄소와 탄소 사이는 단일결합 또는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지. 탄소와 탄소 사이가 모두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진 지방산이 포화지방산이고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이 불포화지방산이야.

<표1> 포화지방산의 탄소 개수와 녹는점의 관계

탄소 개수	10	12	14	16	18
녹는점(℃)	32	45	54	63	70

<표2> 탄소 개수 18인 지방산의 이중결합수와 녹는점의 관계*

이중결합수	0	1	2	3
녹는점(℃)	70	16	5	-11

* 이 관계는 모든 지방산에 유사하게 나타난다.

- ① 탄소 개수 12인 포화지방산이 탄소 개수 14인 불포화지방산보다 녹는점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 ② 같은 탄소 개수로 이루어진 지방산이라면 이중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 ③ 탄소 개수 16인 포화지방산과 탄소 개수 16이고 이중결합 1개를 가진 불포화지방산 사이의 녹는점의 차이는, 탄소 개수 14이고 이중결합 1개를 가진 불포화지방산과 탄소 개수 14이고 이중결합 2개를 가진 불포화지방산 사이의 녹는점의 차이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 ④ 상온에서 액체인 식물성 지방을 원료로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고체 마가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물성 지방의 불포화지방산의 탄소와 탄소 사이에 좀 더 많은 이중결합을 만들어야 한다.
- ⑤ 동물성 지방은 식물성 지방보다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일반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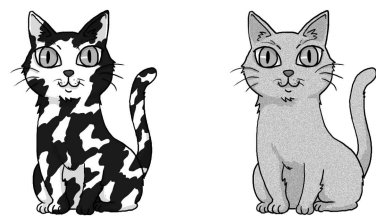
16. 다음 글을 토대로 ㉠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포유류의 성별은 성염색체인 X염색체와 Y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암컷의 체세포*에서 두 개의 X염색체 중 하나는 초기 발생 과정에서 극도로 응축되어 기능하지 않는다. 이는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RNA 및 단백질의 양이 수컷에 비해 두 배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발생 과정은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수정란에서 시작하여 연속된 세포분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발생 초기에 배아의 세포들은 성체가 된 후 있어야 할 위치로 움직인다. 이 세포들은 각각 연속된 세포분열을 통해 이웃 세포들을 만들고 이 이웃 세포들이 피부 등의 조직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성체의 조직에서 근거리에 위치하는 같은 종류의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연속된 분열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다.

A종(種) 고양이 털색은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X염색체에 존재하는 A종 고양이 털색 결정 유전자는 흰색을 내는 유전자와 검은색을 내는 유전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X염색체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존재한다. A종 수코양이는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흰색이나 검은색의 개체만 관찰된다. ㉠ 반면 A종 암코양이의 털색은 흰색, 검은색 그리고 아래 <그림>의 왼쪽과 같이 흰색과 검은색의 얼룩무늬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림>의 오른쪽과 같이 흰 털과 검은 털이 고르게 섞여 회색으로 보이는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 체세포 : 생식세포(예 : 정자, 난자)를 제외한 세포

- ① X염색체 응축이 수정 이전에 어미의 난자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 ② 두 개의 X염색체 중 하나가 응축되는 과정에서 털색 결정 유전자가 응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③ 털을 만드는 세포들이 털이 나기 직전에 두 개의 X염색체 중 하나를 무작위로 응축시켰기 때문이다.
- ④ 두 개의 X염색체 중 어느 쪽이 응축되는가는 발생 초기에 각각의 세포에서 무작위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 ⑤ 두 개의 X염색체가 서로 다른 털색 결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X염색체 하나가 응축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17. <사실>에 대한 A와 B의 주장을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사실>
찰스 다윈은 1872년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다윈은 기쁨, 슬픔, 놀람, 분노 같은 기본적인 감정의 표현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영장류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또한 사진을 과학적 논의에 사용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다. 그런데 1998년, 이 책에 사용된 사진 일부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크게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A : 다윈은 인간과 영장류가 문화와 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감정 표현 방식을 공유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감정을 표현하는 사진들의 유사성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후 이 사진들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음이 분명히 밝혀졌으므로, 다윈은 ‘변조’에 해당되는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셈이 된다.

B : 다윈이 사진 일부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관련 상황을 고려할 때, 다윈이 사진을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예시’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지금도 책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사용하는 사진을 변형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도 이것을 ‘변조’라 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다윈의 사진 변형도 문제되지 않는다.

- ① 찰나적 감정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당시 사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사진을 보정했다고 다윈이 책에서 밝혔다면, A의 설득력은 낮아지고 B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 ② 다윈의 책에 사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책에 제시된 다른 증거가 다윈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판단된다면, A의 설득력은 영향을 받지 않고 B의 설득력은 낮아진다.
- ③ 다윈의 책 출간 이후 이루어진 관련 과학 연구 결과에 의해 감정 표현의 보편성에 대한 다윈의 주장이 충분히 옹호될 수 있다면, A의 설득력은 높아지고 B의 설득력은 낮아진다.
- ④ 피부에 전기 자극을 주어 원하는 얼굴 표정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당시 최신 기술을 다윈이 책에 실린 사진 일부를 얻는 데 사용했다면, A의 설득력은 높아지고 B의 설득력은 낮아진다.
- ⑤ 다윈의 책 출간 당시 과학 연구에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과 ‘예시’로 사용하는 것의 구별 기준이 미처 확립되지 않았다면, A의 설득력은 높아지고 B의 설득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8. A와 B 두 사람의 토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₁ : 최근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신경생물학적 실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과학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시점의 뇌 상태는 바로 이전의 뇌 상태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경험에서 아무리 생생하게 느끼더라도 자유의지는 착각에 불과하다.
B₁ : 그것은 좀 성급하다. 왜냐하면 뇌 상태가 결정론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특정 시점의 물리적 상태는 이전 시점의 상태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자적 특징은 자유의지를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₂ : 그 주장은 양자역학의 비결정성과 자유의지의 비결정성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다면, 여러 선택지 중 주체의 의지로 하나를 택할 수 있어야 하고 행동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선택을 번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시세계에서 주로 발견되는 양자역학의 비결정성은 이런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B₂ : 미시적 요소가 모여 복합체를 이룰 때 구성 요소의 특징과 복합체의 특징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탁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표면의 매끄러움에 대응되는 원자적 속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끄러움은 엄연히 존재하는 탁자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복합체인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나타날 가능성은 양자역학을 따르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다.
A₃ : 양자역학이 자유의지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자유의지 논의에 양자역학을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B₃ : 양자역학은 적어도 비결정론적 특징이 우리 세계에 존재할 수도 있음을 확인해 준다. 만약 어떤 비결정성도 없다면 자유의지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양자역학은 미시적 비결정성으로부터 자유의지의 비결정성을 얻어 내는 일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 ① B₁은 A₁의 자유의지의 신경생물학적 실체에 대한 주장은 문제 삼지 않고 뇌 상태가 결정되는 방식에 대한 주장을 문제 삼으며 A₁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② A₂는 B₁이 A₁을 논박하기 위해 사용한 과학 이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③ A₂는 B₁이 제시한 과학 이론의 비결정성과 일상 경험에서 발견되는 비결정성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A₁이 지적한 문제가 B₁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 B₂는 A₂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자유의지가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A₁의 결론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₃에 대해 B₃은 앞으로 탐구할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해명하고 있다.

19. (가), (나), (다)의 관계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차이가 없는 한 개인들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이 말은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차이가 있어야만 개인들을 차별 대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차별 대우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차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자.

(가) 각각의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차이가 적어도 하나 있다.

(나) 모든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차이가 적어도 하나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차이가 모든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차이가 된다.

(다) 각각의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차이는 언제나 다르다. 다시 말해 A와 B가 다른 차별 대우라면, A를 정당화하는 차이와 B를 정당화하는 차이는 언제나 다르다.

—<보 기>—

ㄱ. (가)가 성립하면 (나)도 성립한다.

ㄴ. (나)가 성립하면 (가)도 성립한다.

ㄷ. (다)가 성립하면 (나)도 성립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20.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내산 유제품만을 소비하는 P국의 모든 청소년들은 우유만 1ℓ씩 매일 마시는 부류와 요구르트만 1ℓ씩 매일 먹는 부류 중 한쪽에 속한다.

P국의 유제품 가공공장들은 자국의 젖소 사육 농가들이 공급하는 원유(原乳)만을 이용하는데, 원유 1ℓ로 우유를 만든다면 1ℓ가 생산되고 요구르트를 만든다면 0.5ℓ가 생산된다. 원유의 공장 구매 가격은 정부가 규제하는데, 현재는 우유용 원유와 요구르트용 원유의 가격이 동일하다.

다음 두 경우를 가정해 보자.

(가) 우유를 마시면 키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요구르트만 먹던 청소년 중 50%가 우유만 마시게 되었다.

(나) 요구르트를 먹으면 예뻐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우유만 마시던 청소년 중 50%가 요구르트만 먹게 되었다.

—<보 기>—

ㄱ. (가)의 경우, 우유용 원유의 가격을 2배로 올리면 농가의 원유 매출액이 소비 변화 이전보다 줄지 않는다.

ㄴ. (가)의 경우, 요구르트용 원유의 가격을 2배로 올리면 농가의 원유 매출액이 소비 변화 이전보다 줄지 않는다.

ㄷ. 우유용 원유의 가격을 2배로 올리는 것이 (가)의 경우보다 (나)의 경우에 농가의 원유 매출액을 더 늘린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1.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청과물의 거래 방식으로 발매기, 수의계약, 경매가 있고, 이 중 한 가지를 농가가 선택한다고 하자. 발매기는 재배 초기에 수집 상인이 산지에 와서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다음, 수확기에 가져가 도매시장의 상인에게 파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은 수확기에 농가가 도매시장 내 도매상과의 거래를 성사시킨 후 직접 수확하여 보내는 방식인데, 이때 운송 책임은 농가가 진다. 경매는 농가가 수확한 청과물을 도매시장에 보내서 경매를 위임하는 방식인데, 도매시장에 도착해서 경매가 끝날 때까지 최소 하루가 걸린다.

같은 해 동일 품목의 경우, 수의계약의 평균거래가격과 경매의 평균거래가격은 발매기의 거래가격과 같다고 가정한다. 단, 생산량과 소비량의 변동에 의해 가격변동이 발생하는데, 도매시장에서의 가격변동 폭은 경매가 수의계약보다 크다.

농가 A, B, C, D는 여름철 청과물을 생산하는데, 안정된 가격에 팔기 원하는지 여부와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신선도가 유지되는지 여부만을 고려하여 재배 초기에 거래 방식을 결정한다. 이들 농장에서 도매시장까지의 거리는 D가 가장 가깝고, A와 B가 동일하게 가장 먼데, 가장 먼 곳이라도 6시간이면 시장까지 도착한다.

A와 B는 하루 안에 거래를 마쳐야 할 정도로 빨리 시드는 청과물을 생산한다. A는 안정된 가격에 팔기 원하지만, B는 가격의 변동을 이용하여 평균가격보다 높게 팔려고 한다.

C와 D가 생산하는 청과물은 빨리 시들지 않아 거래에 일주일 이상의 여유가 있다. C와 D는 B와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동을 이용하여 평균가격보다 높게 팔려고 하는데, 그 정도는 C와 D가 동일하다.

—<보 기>—

ㄱ. A와 B는 가장 선호하는 거래 방식이 다르지만, 가장 기피하는 거래 방식은 같다.

ㄴ. C와 D는 가장 선호하는 거래 방식이 같지만, 가장 기피하는 거래 방식은 다르다.

ㄷ. A~D가 각자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도매시장으로 오는 동안 발생하는 청과물의 품질 하락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가장 적은 농가는 D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5. 갑과 을 두 사람의 견해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무력화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를 가진 범죄자는 드물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살인의 대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는 일관된 목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칼이나 총기가 사용된 강도사건 가운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가 발생한 공격과 그렇지 않은 공격 사이에는 사건의 동기나 목표의 측면에서 명백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유사점이 더 많이 발견된다. 다른 요인과는 독립적으로 흉기의 치명성이 공격으로 인한 사망의 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사건 현장에서 사용되는 흉기가 총기가 아니라 칼이나 몽둥이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극단적인 결과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을 : 흉기를 선택하는 행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관련된 몇 가지 선택의 결과로 간주되어야 한다. 흉기 그 자체가 피해를 유발하거나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흉기는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순응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어서 흉기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몽둥이나 칼 대신 총기를 사용하거나, 총기 가운데 구경이 큰 총기를 사용하는 범죄자는 그렇지 않은 범죄자와는 의도가 다르다.

—<보 기>—

- ㄱ. 상대적으로, 갑은 충동적인 범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고 을은 계획적인 범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ㄴ. 총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자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을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ㄷ. 치명적인 흉기가 사용된 범죄 사건이 덜 치명적인 흉기가 사용된 범죄 사건에 비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빈도나 상해의 심각성 정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갑의 설득력은 낮아지고 을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6.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상황은 긴박하거나 위협하다. 목격자나 피해자는 이러한 정서적 동요 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나중에 기억해서 진술해야 한다.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억의 정확성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한다. 하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경험보다 비일상적이고 주의력이 고양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경험이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억된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혹은 공포 상황 속에서는 지각 및 판단력이 왜곡되므로 그 상황에 대한 기억도 부정확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다음은 목격자나 피해자의 증언에서 작성 수준과 기억 정확성 사이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이론이다.

A : 정서적인 작성 수준과 기억의 정확성 사이에는 포물선형(∩)의 관계가 존재한다. 즉 정서적인 작성 수준이 낮거나 높을 때는 기억의 정확성이 낮고, 중간 정도일 때 기억의 정확성이 높다.

B : 주의력이 집중되는 범위를 단서 활용 범위라고 한다. 정서적인 작성 수준이 높을수록 단서 활용 범위는 좁아진다. 또한 단서 활용 범위가 좁아질수록 단서 활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기억의 정확성은 증가한다. 긴박하거나 위협한 상황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작성 수준을 높여 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소를 ‘핵심 요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 치명적인 무기는 핵심 요소가 된다. 단서 활용 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은 주의력이 핵심 요소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 기>—

- ㄱ. 기억해야 할 대상이 B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고 작성 수준이 높은 경우, A와 B는 기억의 정확성에 대해 다른 결론에 이를 것이다.
 ㄴ. 높은 작성 수준에서 습득한 정보가 명확하게 기억된다는 실험 결과는 A와 B 모두 약화시킬 것이다.
 ㄷ. 강도가 빈손으로 협박할 때보다 총을 들고 협박할 때 A와 B 모두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더 잘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할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7. 다음의 연구 결과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범행을 결심한 침입절도범은 먼저 범행지역을 선택한 후, 그 지역에서 침입할 집을 선택한다.
 범행지역의 선택은 범행이 적발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범행이 적발될 가능성은 범행지역의 (1) 경찰 순찰 정도, (2) 인적의 다소, (3) 경비자의 존재 유무로 판단된다.
 침입할 집의 선택은 침입용이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침입용이성은 (1) 집의 층수, (2) 침입방법의 용이성, (3) 침입할 집 내부의 보안설비 유무로 판단된다.
 범죄자의 특성은 범죄경력, 체포에 대한 두려움, 범행계획수준인데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대상의 선택이 달라지기도 한다. 다음은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대상의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만을 제시한 것이다.

○ 초범인 절도범, 범행계획수준이 낮은 절도범,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절도범은 범행지역에서의 적발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재범 이상인 절도범, 범행계획수준이 높은 절도범,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절도범은 적발가능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 재범 이상인 절도범, 범행계획수준이 낮은 절도범은 침입이 용이한 집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초범인 절도범, 범행계획수준이 높은 절도범은 침입의 어려움을 무릅쓰는 경우가 많다.

<보 기>

ㄱ. 체포에 대한 두려움은 범행지역의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만, 침입할 집의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ㄴ. 범행지역 선택 단계에서 재범 이상인 절도범은 경찰 순찰 이나 인적의 다소, 경비자의 존재 등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최종 목표를 선택할 때는 1층이나 보안설비가 없는 집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ㄷ. 재범 이상인 절도범과 범행계획수준이 낮은 절도범은 목표 를 선택할 때 범행지역의 사람 왕래나 경비자의 존재를 고 려하지 않고 창문이 열린 집이나 1층인 집을 찾는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8. 다음 설명과 표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지역 노인들의 건강 상태 차이를 만드는 요인들의 관계와 효 과를 분석하였다. 배경 요인인 ‘배우자 유무’와 ‘소득 수준’이 ‘건강 위험 행동(과음, 흡연 등)’과 ‘자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네 요인은 다시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설명되는 요인 설명하는 요인		건강 위험 행동	자녀관계 만족도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남 자	배우자 유무	㉠ -	+		
	소득 수준	-	㉡ +	+	+
	건강 위험 행동			-	-
	자녀관계 만족도				+
여 자	배우자 유무		-		-
	소득 수준		-	-	-
	건강 위험 행동			-	
	자녀관계 만족도				+

+는 정(正)의 관계, -는 부(否)의 관계이며, 빈칸은 유의미한 관계가 아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 “배우자가 있을 때 건강 위험 행동을 덜 하고 배우자가 없을 때 건강 위험 행동을 많이 한다.”라고 해석하며, ㉡는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고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낮다.”라고 해석한다.

<보 기>

ㄱ. 남자는 소득이 많을수록 신체 건강이 좋은 반면 여자는 소 득이 많을수록 신체 건강이 나쁘고, 남자와 여자 모두 자녀 관계 만족도가 신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ㄴ. 남자는 배우자가 있을 때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고 이를 매 개로 정신 건강이 향상되지만, 여자는 배우자가 없을 때 자 녀관계 만족도가 높고 이를 매개로 정신 건강이 향상된다.
 ㄷ. 남자는 배우자가 있을 때 건강 위험 행동을 덜 하고 이를 매개로 신체 건강이 좋아지는 데 반해, 여자는 배우자 유무 가 신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9.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술을 마시는 사람을 우리는 의지박약자라고 말한다. 의지박약은 생각보다 복잡한 현상으로서 ‘합리적 인간’의 개념을 위협한다. 인간이 합리적 존재인 이유는 자신의 욕구와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할 줄 안다는 뜻이다. 술을 마시는 행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와 술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 주리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술을 마시는 행동은 합리적 행동이다. 그러나 건강한 삶을 원하고 음주가 건강을 해친다고 믿는 합리적 존재는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면 그 순간 나는 건강한 삶의 욕구를 갖지 않았으므로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은 의지박약 행동이 아니다. 또 술이 건강에 해롭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술을 마셨다면 그 순간 나는 술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믿었던 것이므로 그것 역시 의지박약이 아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믿음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가지면서도 음주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지박약인데, 이러한 행동도 흔히 발견되는 것 같다. 의지박약 행동을 하는 순간 나는 합리적 존재가 아닌 셈이다.

—<보 기>—

어떤 사람의 행동 A가 의지박약 행동이라면 A를 하는 시점에서 그 사람은,

- ㄱ. A를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ㄴ. A가 자신에게 최선의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 ㄷ. A를 통해서도 그 어떤 욕구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0.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증언에 근거한 추론은 목격자의 보고가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관찰에 근거한다. 증언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라거나 증언의 내용이 진기한 사건이라면 증언의 신뢰성은 낮아진다. 이제 증언의 내용이 단순히 진기한 사건이 아니라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하고, 증언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아주 신뢰할 만하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강력한 증거에 반하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 가운데 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기적은 자연법칙의 위반이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기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런 죽음도 가끔 일어나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그런 일은 어느 때도, 어디에서도 관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기적적인 사건에는 그것과 상반되는 ‘한결같은 경험’이 있기 마련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사건을 기적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결같은 경험은 기적의 존재를 부정하는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증거이다.

누군가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나는 곧 그가 나를 속일 확률이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확률보다 더 높은지를 가늠해 본다. 나는 하나의 기적과 다른 기적을 서로 저울질해 보고, 항상 더 기적적인 쪽을 버린다. 그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그가 말하는 그 사건보다 더 기적적이라면, 그리고 그 경우여야 비로소 그는 나의 믿음이나 견해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명백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그 증언을 통해 확립하려는 사실보다 더 기적적이지 않은 이상, 어떤 증언도 기적을 입증할 수 없다.”

—<보 기>—

- ㄱ. 글쓴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이 참일 가능성보다 그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더 기적적이어야 부활을 믿을 것이다.
- ㄴ. 글쓴이에 따르면, 증언을 토대로 어떤 기적이 발생했다고 믿는 사람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보다 그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낮다고 믿어야 한다.
- ㄷ. 1만 번에 1번 정도만 거짓말을 할 정도로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동전 던지기를 1만 번 했는데 모두 앞면이 나왔다.”고 증언했을 경우, 글쓴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1. 스승과 제자의 대화에 대한 평가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제자₁ :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들키지 않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이득이지 않습니까?
스승₁ : 그런 식으로 성공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출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해. 신이 아니고선 성인이나 지킬 수 있는 원칙들을 따르기 어려운 것처럼, 악마가 아니고선 극단적 범죄성을 요구하는 원칙들을 따르기는 어려워. ‘항상 양심의 가책 없이 나쁜 일을 잘 해내는’ 이런 극단적 범죄성이 알다시피 사람들에게겐 부족하잖아.
제자₂ : 그럼 대개는 규범을 따르다가 감시와 벌을 피할 수 있을 때만 어기는 쪽으로 원칙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스승₂ : 사람들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똑바로 사는 척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똑바로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인류는 이미 가식과 범죄가 남는 장사가 못 되게끔 사회를 발전시켜 놓았어.
제자₃ : 양심과는 거리가 먼 사업에서 큰돈을 번 사람들은요?
스승₃ : 그런 식으로 번 돈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해. 또 그만큼 능력으로 돈벌이는 덜 되지만 건전한 직업을 택했으면 더 행복했을 거야.
제자₄ : 부정하게 돈을 벌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승₄ : 그런 경우는 드물 수밖에 없어. ‘그냥 똑바로 산다’는 건 습관을 넘어 그런 성향을 갖는다는 것, 즉 규범에 맞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어긋날 때 기분이 나빠지는 감정까지도 갖는다는 것을 뜻하거든. 이런 성향에 기반을 둔 상호 협조와 애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삶에서 기대하는 따뜻함과 행복은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제자₅ : 성향까지 갖추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요? 그런 성향은 결국 자신의 자잘한 잘못도 혐오하게 하고 자기 증오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증오까지 안 가도록 잘못에 대한 반감을 완화하다 보면 성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스승₅ : 균형이 중요하지. 모든 일상적인 사태들에서 지키기에는 충분하면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는 아닐 만큼만 나쁜 행위에 반감을 동반하도록 해야 해.

- ① 테레사 수녀처럼 자기희생과 헌신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스승₁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 ② 가끔씩 양심의 가책 없이 나쁜 일을 잘 해내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 스승₂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 ③ 돈만 많으면 행복이 보장된다거나, 행복에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고 상당한 돈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도덕적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이면 스승₃이 반박된다.
- ④ 비도덕적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이후 자기 재산을 좋은 일에 흔쾌히 쓰면서 비로소 행복을 찾은 경우가 있다면 스승₄는 약화된다.
- ⑤ 스승₅가 제자₅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려면 자기 증오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도덕적 성향을 유지할 수 있는 중도의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32. 다음 논증의 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간에 대한 인간의 요구와 반응이 각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동물과의 비교 연구가 도움이 된다. ㉡ 이용 가능한 공간의 크기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동물을 대상으로 관찰할 경우 인간 행동의 관찰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동물의 세대 간격은 비교적 짧기 때문에 동물을 이용하면 시간을 가속화할 수 있다. ㉣ 예컨대 한 과학자가 40년 동안 관찰할 수 있는 생쥐는 440세대에 이르지만 인간은 고작 2세대에 그친다. ㉤ 그리고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는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 게다가 동물 관찰에서는 번덕과 자기합리화로 뒤범벅인 행동을 해석하느라 골치를 썩일 필요도 없다. ㉧ 동물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놀라우리만큼 일관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따라서 동물에게서는 반복적인 행위, 사실상 동일한 행위가 관찰된다.
㉨ 특히 동물이 공간을 다루는 방식을 관찰한 결과를 인간의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자못 크다. ㉩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데 기본 개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영토권이다. ㉪ 영토권이란 동물 개체가 특징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영역을 일컫는 것으로, 개체는 동일 종의 다른 구성원이 그 영역을 침범하면 방어 행동을 보인다. ㉫ 동물의 영토권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생활에 대한 기존 관념들을 많이 바꾸어 놓고 있다. ㉬ 흔히 자신은 사회에 감금되어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새처럼 자유롭다.”는 표현을 우리는 쓴다. ㉭ 그러나 우리는 영토권 연구를 통하여 오히려 그 역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 동물은 자신의 영토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비한다면 인간은 매우 자유로운 존재인 셈이다.

- ① 최종 결론인 ㉠이 ㉡와 ㉨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이 논증의 큰 줄기이다.
- ② ㉡를 지지하는 근거로 ㉢, ㉤, ㉦가 사용되고 있다.
- ③ ㉣는 ㉢를, ㉧는 ㉦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 ④ ㉫는 ㉪를, ㉪는 ㉩를, ㉩는 ㉨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 ⑤ ㉩와 ㉭은 ㉫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33.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될 수 없는 것은?

용의자에 관한 정보를 2개의 서류철에 담아 관리하고 있다. 1번 서류철에는 용의자 A, B, C에 관한 서류가 있고, 2번 서류철에는 D, E, F에 관한 서류가 있다. 이 두 서류철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추가로 두 개의 서류철을 만들었다.

- 1번 서류철에 포함된 사람이 2번 서류철에 포함된 사람 중 2명과 만난 적이 있을 경우, 이 3명의 서류를 복사하여 3번 서류철에 넣는다.
- 2번 서류철에 포함된 사람이 1번 서류철에 포함된 사람 중 2명과 만난 적이 있을 경우, 이 3명의 서류를 복사하여 4번 서류철에 넣는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 A가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E뿐이다.
- 3번 서류철은 C에 관한 서류와 D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 ① B와 E가 만난 적이 있다면 4번 서류철은 E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 ② C와 D가 만난 적이 없다면 4번 서류철은 A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 ③ C와 D가 만난 적이 없다면 3번 서류철은 F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④ C와 E가 만난 적이 있다면 4번 서류철은 E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 ⑤ C와 E가 만난 적이 없다면 C와 F는 만난 적이 있다.

34. 세 상품 A, B, C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한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상품부터 1~3순위를 부여했다. 두 상품에 같은 순위를 표시할 수는 없다. 조사의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C에 3순위를 부여한 사람의 수는?

- 조사에 응한 사람은 20명이다.
- A를 B보다 선호한 사람은 11명이다.
- B를 C보다 선호한 사람은 14명이다.
- C를 A보다 선호한 사람은 6명이다.
- C에 1순위를 부여한 사람은 없다.

- ① 8 ② 7 ③ 6 ④ 5 ⑤ 4

35.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은?

우리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동료들이 어떻게 답변하는가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해 내가 어떻게 답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물론 동료들의 실제 답변이나 예상 답변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소심형 : 자신을 제외한 동료 집단의 과반수가 한 실제 답변을 알게 되면 이를 자신의 실제 답변으로 삼는 유형
- 눈치형 : 자신을 제외한 동료 집단의 과반수가 할 것으로 자신이 예상하는 답변을 자신의 실제 답변으로 삼는 유형
- 순종형 : 자신을 제외한 동료 집단의 과반수가 예상하고 있는 자신의 답변을 알게 되면 이를 자신의 실제 답변으로 삼는 유형
- 반대형 : 자신을 제외한 동료 집단의 과반수가 예상하고 있는 자신의 답변을 알게 되면 그와 정반대되는 답변을 자신의 실제 답변으로 삼는 유형

한 사무실의 동료 집단을 구성하는 갑, 을, 병, 정은 회사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찬반을 묻는 두 질문을 받게 되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동료 집단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그 규정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답변하도록 했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동료 3명이 각각 그 규정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를 예상하여 그 예상 답변들을 적도록 했다. 갑, 을, 병, 정의 순서로 두 질문에 비공개로 답변을 하게 한 후, 이들에게 답변 결과를 모두 알려 주고 역시 갑, 을, 병, 정의 순서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 갑은 소심형, 을은 눈치형, 병은 순종형, 정은 반대형이다.
- 첫 번째 질문에서 을과 병은 찬성이라고 답변했고, 갑과 정은 반대라고 답변했다.
- 두 번째 질문에서 갑은 다른 동료 모두 반대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했고, 을과 병은 정이 찬성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꾼 사람은 한 명이다.

- ① 두 번째 질문에서 을은 갑이 반대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 ② 두 번째 질문에서 을은 병이 반대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 ③ 두 번째 질문에서 병은 갑이 찬성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 ④ 두 번째 질문에서 병은 을이 찬성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 ⑤ 두 번째 질문에서 정은 병이 찬성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